

보임틀, 나주 특수LCD 공장 건설

1만6000㎡ 부지에 166억원 투입 ... 첨단제품 생산거점으로 육성

LCD 모니터 전문 생산기업 보임틀이 전라남도 나주에 신규 LCD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보임틀의 김우신 대표이사는 3월25일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와 LCD 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임틀은 경기도 파주 소재 디스플레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LCD모니터와 LCD-TV, PDP-TV를 생산해 국내외로 공급하고 있다.

보임틀은 나주일반산업단지 1만6000㎡의 부지에 166억원을 들여 전 공정을 자동화한 평판형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78명의 신규직원도 채용키로 했다.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R&D설비와 인력 투자도 병행해 고급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전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임틀은 나주공장을 터치 LCD 모니터와 선박·군수용 LCD, 방수·방탄 모니터, 3D LCD모니터 등 첨단 특수 LCD제품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6>